

개인기록을 통한 국어생활사 연구

—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김규남(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에 대한
시계열 분석 |
| 2. 시대 상황 및 저자의 언어적 지향성 | 3.1. 표기와 발음의 관계 |
| 2.1. 시대 상황의 변화 | 3.2. 표기 변이의 빈도 분석 |
| 2.2. 개인의 삶과 언어적 지향성 | 3.3. 개신형 ‘ㅅ’ 시기 분석 |
| | 4. 결론 |

1. 서론

이 논문은 개인기록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 변이와 변화의 양상을 국어생활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¹⁾. 여기서 개인기록 자료는 졸고(2011, 2012, 2013)에서 다룬 바 있는 『창평일기』다. 『창평일기』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의 고 최내우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839).

1) 이 내용은 지난 2015년 4월 11일 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어생활사라는 관점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이다.

웅(1923년~1994년, 이후 저자라 칭함)이 1969년 1월 1일(만 46세)부터 1994년 6월 17일(만 72세)까지 약 스물여섯 해 동안 작성한 일기 자료이다.²⁾ 일기가 작성된 1970, '80년 대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촌향도 시기라는 시대적 특성이 있다. 저자는 그 시대와 지역을 배경으로 국가주도의 근대화에 적극 동참하여 마을 지도자와 어른으로 살아가는 근면하고 성실한 모범 국민이다. 본 논문은 현대국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와 변화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개인의 특성 위에서 분석될 때 좀더 선명한 이해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구미의 미시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지방사, 생활사, 풍속사, 일상사 등의 층위와 등가로 이해될 수 있다. 광차섭(2012:1~3)에서는 미시사를 '역사의 리얼리티를 작은 규모 혹은 척도를 통해 바라보는 접근 방법으로 세밀한 상을 통해 그것의 콘텍스트를 이루는 더 큰 부분의 보다 적절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인의 일상 기록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차원에 집중함으로써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바로 구미의 미시사적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생활사 연구³⁾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박진호(2007: 20)에서는 체계 중심의 연구에 그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언어와 문자의 사용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국어생활사 자료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조태린(2009: 356)에서는 규모를 한정·축소해서 대상 자료에 대한 세밀한 조사에 집중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해당 시기의 국어생활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료에 대한 관찰과 이해의

2) '창평일기'라는 명명은 저자의 마을 앞들을 '창평, 창인평'으로 부르는 데 착안하여 저자의 장자가 '책평일기'로 명명한 것을 2012년 저자의 장자와 협의하여 '창평'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창평일기』의 해제는 이정덕 외(2012, 2013)를,

3) 국어생활사 연구는 조동일(2003)에서 도입된 이래 민현식(2003), 김은성(2007), 황혜진(2007), 허재영(2008) 등 국어교육학계에서 연구의 개념, 범위, 방향 설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상호(2003), 김은성(2004), 백낙천(2007), 백두현(2004, 2005, 2006, 2007) 등에서는 언간과 고문서 중심의 생활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백두현 교수의 연구들은 언어 변화에 사회적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생활사 연구의 구체적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연구사적 관점의 정리는 이장희(2008)에 의지하기로 한다.

방식과 관련하여 김은성(2007: 456~458)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국어생활사 연구가 생활주체인 국어 사용자의 인식과 동기, 의지 등을 내부자적 시각 즉 이믹(emic)적 관점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장기간에 걸쳐 기록된 일기 자료는 일상의 언어 사용 양상과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언어 사용 주체의 내부자적 시각을 이해하는 데 최적의 자료이다. 본고는, 장기간의 개인기록에 나타나는 언어 변이와 변화의 과정과 내용을, 조태린(2009: 360~361)에서와 같이 “국어생활사 연구는 언어 구조와 사회 구조의 형식적 관계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그치는 상관의 오류를 극복하고 개별 대상 자료에서 드러나는 국어생활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상징적, 질적,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세 가지 층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일기 저자가 속한 시대와 지역적 기반 및 개인의 언어적 지향성 확인, 둘째는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에 대한 미시적 관찰 그리고 셋째는 시대적 배경 및 개인의 지향성과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상관성 규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국어 언어 변이의 한 양상으로서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의 내용을 언어 사용자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시대 변화 및 저자의 언어적 지향성

2.1. 시대 상황의 변화

1970년대~1980년대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전화, 텔레비전 등 매체 보급의 보편화, 도로망의 확충과 대중교통의 발달, 자녀 교육 등으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빈번해짐으로써 마을 공동체에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66년 임실군의 인구는 118,175명, 1995년에는 37,201명으로 약 30년 동안 80,974명이 줄었다. 저자의 마을 역시 1960년 당시 약 90여

호 남성 인구 252명에서 2013년 현재는 사망 71명, 거주 23명을 제외한 148명이 모두 타지로 떠났다. 저자의 집안에서도 1970년대 초반부터 11명의 자녀 중 셋째 아들을 제외하고 10명의 자녀가 전주와 수원 등지로 떠나게 된다.

농촌마을 언어사회와 그 구성원인 저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말미암아 외지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표준어와 전주말의 영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70년대와 80년대의 일기 안에서 저자의 외지 출입 및 외지에 대한 언급 횟수를 보면, 가장 빈번한 왕래 지역은 전주(2517회, 26.4%), 임실, 관촌(2432회, 22.5%), 인근 마을(1785회, 18.7%) 순이며 서울 경기 지역(1264회, 13%)이 그 뒤를 잇는다.⁴⁾

전통적인 농업 사회가 붕괴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로의 발달은 생활은 물론 가치 체계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 시기는 외지로 떠난 이들이 남아있는 이들보다 나은 상태가 되어 돌아오는 일반적 상황 속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해체되고 도시와 외부 지향성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방언의 소멸과 표준어 중심의 외재적 위신이 7,80년대 한국 사회 전반의 언어 변화를 이끄는 상황은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다.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서울말과 표준어 중심의 언어 변화는 서울말과 표준어가 가지는 외재적 위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일기 안에서의 그 구체적 사례로는 ‘오늘’의 어휘적 변이와 변화를 들 수 있다. 일기 작성 초기 ‘오늘은 ‘오날’과 ‘오늘’ 그리고 한자어 ‘今日’이 변이 상태를 보이며 의고적 변이형 ‘오날’이 표준어 ‘오늘’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다가 80년대에 들어 ‘오날’은 82년 이후 91년과 92년 단 두 차례 사용된다. ‘오날’은 결국 어휘 변이의 변이형 목록에서 사라져 사어가 되었다.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외재적 위신이 그 시대의 변화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 내에서는 비표준형이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비표준형이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적 위신을 얻는 내재적 위신의 전형적인 예로는 ‘요>외, 유>위’ 변화의 반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외>요, 위>유’의 과도교정형, ‘횡단>홍단, 횡산>홍산, 횡령>홍영, 횡탄계>홍탄계, 휘발유>휴발유, 괴환>교환’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꾸준히 산발적으로 출현하고 있다.(줄고 2012:265) 전북 지역에서 보편성을

4) 『창평일기』에 대한 사회학, 인류학적 관점의 해체는 이정덕 외(2012, 2013)를 참조할 수 있다.

지니는 <굉장히> <공장히>와 더불어 <휘발유> <휴발유>는 지금도 지역 사회 내에서 일정한 위신을 가진 채로 지속되고 있다.

2.2. 개인의 삶과 언어 지향성

저자의 언어 지향성은 저자의 삶을 조망해 보면 좀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⁵⁾ 저자는 20대 중반 마을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 무려 17년 동안 마을 내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 왔다. 일제 강점기 구장이었던 숙부와 이복형으로부터 외부 권력과 결속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해방 이후 친일파 숙청을 기치로 발발한 1948년 2.26사건 당시 이장 대행을 자처하여 경찰들을 후히 대접하여 마을의 피해를 줄인 일,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7월 23일부터 9월 말까지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산으로 도망친 마을 내부의 입산자들을 모두 자수시킴으로써 마을에 사상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조처한 일은 그 전형적 사례이다. 이후로도 저자는 경찰, 공무원 등과 긴밀한 결속을 유지하면서 마을 대소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저자가 방앗간 주인이며 농부로서 마을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마을 지도자이고 유지이며 실력자로서 경찰, 군인, 공무원, 공화당 당원, 면 단위 유지 등의 외부 권력과 결속을 통해 그들과 내집단 정체성을 강화해 온 것이다(줄고 2011:36~40).

일기 작성 기간 동안의 사회적 활동 내용을 나누어 보면 40대는 친목계, 쌀계, 칠성계, 속목계 등 주로 마을 내부의 모임을 위주로, 50대는 가공협회, 동창회, 신우회 등 면 단위, 60대는 향교, 노인회, 대중회 등 면, 군, 도 단위로 사회 활동의 범위가 확장되었다(줄고 2013:206-208). 따라서 저자가 지향했던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은 일기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공무집행자 정체성, 그리고 80년대 이후로는 향교 장의, 노인회, 대중회장 등 이른 정체성이다.⁶⁾ 이런 특성은 ‘하고’, ‘하다’ 따위를 줄여서 말하는 ‘코,

5)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자는 회고록 『월파유고』를 남겨 유년기부터 일기를 쓰기 이전 특히 한국 동란기의 마을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일기를 쓰기 이전의 상황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 제시된 내용은 회고록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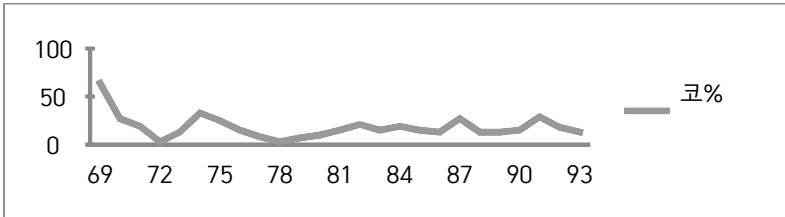
6) 지면 관계상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둘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므로 표를 읽을 때는 위의 표에

타'형 사용과 한문 문장을 읽을 때 토처럼 사용하는 '하야'의 사용 추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1> 공무집행자 정체성 표지 '코'의 빈도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코	177	49	33	3	15	48	45	26	10	3	9	11	21	50
하고	98	132	143	90	98	97	134	148	114	106	115	95	116	184
코%	64	27	19	3	13	33	25	15	8	3	7	10	15	21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코	28	42	15	15	40	32	22	20	67	30	18
하고	156	184	86	118	149	206	147	114	166	139	124
코%	15	19	15	13	27	13	13	15	29	1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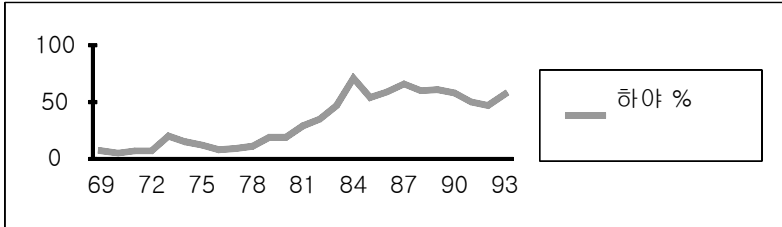


‘코’의 추이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해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까닭은 그의 일기 작성 이 저자가 공무집행자로서 마을의 일에 대해 관찰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태도의 반영이다. 반면 그러한 의식이 희박해지면 ‘코’의 사용도 줄어든다.⁷⁾ 또한 향교 장의가 된

이어서 연도별 출현 빈도를 비교해야 한다.

7) 줄고(2011:49~50)에서 1969년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해에 저자가 행정 말투 건(件), ‘하 고>코, ‘하다>타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것이 26년 동안 어 떤 추이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가운데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코’를 변항으로 설정 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후부터 저자가 생을 마감하는 해까지 ‘하야’의 점유율이 무려 50%로 나타난다(줄고, 2013:219).



회고록과 일기 기록 중 1949년 구장 선거⁸⁾와 1977년 편지 사건⁹⁾은 저자의 언어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두 사건은, 저자 스스로의 자아정체감과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정체감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저자의 자괴와 강박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러한 상황에서 향교 장의원 당선은 그 자괴와 강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며 ‘하야’는 자아정체감과 사회정체감의 괴리를 극복한 결과를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언어 정체성 표지로 기능하는 것이다. 향교 장의에 이어 지속되는 사회적 성취들, 즉 면 노인회 회장, 삭녕 최씨 남원지회 종회장 등의 사회 활동 역시 저자의 권위적 언어 사용을 더욱 지속하게 하는 동인이다(줄고 2013:214~216). 그러한 결과가 일기 안에서 과도한 한자 쓰기, 표준어 및 외래어 사용 및 과도교정, 위신 표기의 증가등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와 변화 역시 저자의 이와 같은 언어의식과 태도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인

8) 줄고(2011:48~49)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49년 마을 이장 선거 당시 저자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한자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한자 쓰기를 상용화하고 그 결과가 일기의 68.55%를 한자로 표기하는 결과를 낳는다.

9) 1977년 9월 26일 일기에서 옆집 사람이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편지를 읽어주니 자기 딸보다 못 읽는다며 자신이 편지를 읽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저자는 ‘참으로 창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저자의 체면을 훼손한 사건임은 물론 저자의 정치적, 경제적 성장과 지적 상태의 불일치에 대한 심한 자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그런 상황에서 향교 장의가 된 사건은 정치적, 경제적 성취에 이어 지식인 정체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줄고 2013:221).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3.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 변이에 대한 시계열 분석

최전승(1986:281-282), 백두현(2012:77)에 따르면, 19세기 전라 방언에서는 체언 어간 말 자음 ‘ㄷ, ㅌ’이 주격 환경에서 구개음화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규칙 적용형 ‘ㅈ, ㅊ’가 다른 격 어미와의 결합 환경으로 유추적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패러다임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한 세기 뒤인 20세기 후반 일기 자료와 동일 지역, 동일 세대 화자들이 보이는 체언 어간 말 자음의 대강은 김해정 외(1982: 21~44)¹¹⁾와 한국방언자료집(1987)¹²⁾ 임실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자료에서는 1980년 초반 당시 6·70대 임실 지역 화자들이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을 주격 대격 통합 환경에서 모두 마찰음 [s]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10) 「수운정비회유록」의 ‘고지, 버절, 버즐, 쓰즐, 쓰질, 쓰지로’ 등은 최전승(1986)에서 관찰한 ‘쏟, 받의 곡용형·쓰질, 버즐과 동일한 성격 즉 구개음화 적용형에 의한 곡용 계합구조의 유추적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날날이’의 실현형 ‘냇냇치(9ㄴ)~냇냇시(14ㄴ)’가 변이 상태임을 보여준다. 한편 ‘붓’의 활용형 ‘붓티로(6ㄴ)’의 출현이 주목되는데 이는 당시 ‘붓~불’ 혹은 ‘붓~뿔’의 변이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붓~뿔’의 변이는 음절말 ‘ㄷ’형 ‘끝, 밭, 솥, 돌, 밑’ 등의 ‘ㄷ’을 유추하였을 가능성을 전제하며, ‘붓~뿔’의 변이는 ‘ㄷ’ 계 어휘와 주격 조사 통합 환경에서 나타나는 ‘ㅈ’의 유추에 이은 과도교정을 가정한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 저자가 ‘붓+으로’의 실현형 [부시로]를 보다 정확한 형태로 교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ㅈ’형에 대한 교정 의지와 그 대상이 ‘ㄷ, ㅈ’인 점은 체언 어간 말 자음의 실현에 있어서 현대국어의 체언 어간 말 자음의 변이형 출현의 원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1) 이 자료는 1982년 2월~8월 전북 임실군 청웅리와 운암면 학암리 일대 60~70대 남녀 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 12) 한국방언자료집 서지사항에 이 자료는 1980년 12월 5일~12월 14일에 임실군 김복동(61), 1986년 8월 3일~4일 한창식(71) 체보자에게서 조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처격 조사 통합 환경에서 [pa^hidaga], [so^hɕe], [cə^hɕe]처럼 [t^h]가 나타난다.¹³⁾

3.1. 표기와 발음의 관계

언어 변이와 변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통합 환경의 표기들이 실제 발음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음절 말 ‘ㅈ, ㅉ, ㅊ, ㅅ’와 모음 후행 환경의 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⁴⁾

음절 말 자음 ‘ㅈ’와 모음 후행 환경의 표기 사례는 총 1812회이며 그 가운데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같이’이다. 규범형 ‘같이’의 표기는 ‘갓이’(960회, 95%), ‘가치’(4회, 0.04%), ‘같이’(37회, 0.4%)¹⁵⁾로 나타난다. 이는 저자가 표기 규범에 익숙하지 않으며 음소적 표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ㅈ’의 분철표기(같이, 37회 0.4%)에서 ‘이’ 앞의 ‘ㅈ’는 현실발음 [t^h]로 소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환경에서 ‘마치고’의 과도분철 표기 ‘맞이고’(427회) 역시 ‘ㅈ’형 표기가 현실발음으로는 [t^h]로 실현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밭+이’(3), ‘반히어’(1), ‘반치지’(1) 등의 분철, 과도분철, 혼철표기 등에 나타나는 ‘ㅈ, ㅉ’ 등은 실제 발음상 [pa^hɕi]로 소급되며 이러한 방식은 음절 말 ‘ㄷ, ㅌ, ㅊ’의 표기에서도 ‘ㅈ’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표 2> 설단자음과 모음 후행 환경의 표기 양상

ㅈ○(1812)	ㅉ○(871)	ㅊ○(402)	ㅅ○(2149)
갓이(960)	밭에서	믿을	삼곳을 솟에다
가치(4)	같이면	같이라(같더라)	낮을 갈드라

13) 처격 환경에서 유추적 평준화의 저지에 대한 설명은 처격 밀착(이병근 1975:38), 시간 또는 공간 개념의 체언과 더불어 관용적 표현 형성(이기갑 1986:51-52), 이진호(2005:309)에서는 처격조사가 잘 생략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밧에가, 밧에를’과 같이 처격조사 결합형 전체가 새로운 어간형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공미티, 떨끄타’(고군산군도)처럼 지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진승(1986:281~282)에서 처명 빈도, 폭넓은 용법, 언어습득 초기 출현상의 이유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어간 말 자음이 ‘ㅈ’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후행하는 환경에서는 연철형 ‘대나제(대 낮에)’가 1회 출현한다.

15) 세 자리 수 반올림

같이(37)	같았다	같이온(갔다온)	꽃을 냈다
맞이고(427)	줄아	받으려	잘못을
마치고(66)	줄으라	구든	웃을 논데
맞았(14)	맡았다	받았다	밧을
마참(73)			납분 짓을
			버릇을 버리게
꽃이	끝을, 끝은	고초받에	애들 닳은
밧이	받에, 받을	배채 무 받을	<비교>
햇빛을	머리맡에		밧이면
쫓이			햇으니
늦이			대접을 밧았다

단 ‘ㅅ’의 일부 표기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였’의 ‘ㅅ’을 ‘ㅆ’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받았다’를 ‘밧았다’ 등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이 다수 출현한다. 이는 중성 표기 가운데 ‘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서 오는 결과이다.¹⁶⁾ 설단자음 표기에서 ‘ㅅ’의 압도적 점유율(93%, 63,548회)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즉, 음절 말 표기 ‘ㅅ’은 모든 설단자음의 표상이며 따라서 음절 말 ‘ㅅ’ 이외의 표기 즉 ‘ㅆ, ㅌ’ 등은 상대적 유표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독형 표기나 자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ㅆ’형 표기는 곡용 환경에서 실현되는 ‘ㅅ’ 이외의 현실음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 ‘ㅅ’ 표기가 설단자음 계열 표기의 93%(63,548회)를 차지하는 것은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곡용이 표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대 국어 화자들에게 ‘good’을 ‘굿, 굶’으로 표기하고 [구시다, 구시라고]로 읽고, ‘bar’을 ‘뻗, 뺨’으로 표기하고 [뺨스르, 뺨시다]로 읽는 것은 ‘ㅅ’ 표기가 형태음소적 층위와 음소적 층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성 표기 ‘ㅅ’은 ‘ㅅ, ㅆ, ㅌ, ㅊ, ㅆ’를 함의한 표기이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통합 환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ㅅ’의 이러한 성격과 ‘ㅅ’이 차지하는 표기상의 압도적 점유율은 체언 어간 말 자음의 ‘ㅅ’이 곡용 체계를 단일하게 만들어 주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2. 표기 변이의 분포 및 빈도 분석

체언 어간 말 자음의 역사성을 토대로 일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ㄷ>ㅌ>ㅅ’의 변화를 겪은 어휘, ‘ㅌ>ㅅ’의 변화를 겪은 어휘, ‘ㄷ>ㅌ>ㅅ’의 변화를 겪은 어휘, ‘ㅌ>ㅅ’의 변화를 겪은 어휘로 구분하여 그 표기 양상과 빈도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ㄷ>ㅌ>ㅅ’의 변화와 관련된 어휘들 가운데 표준어 ‘빛’은 이 지역에서 ‘빛’으로 어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아래 도표에 함께 제시하였다.¹⁷⁾

<표 3> ‘ㄷ>ㅌ>ㅅ’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어휘의 곡용형과 출현 빈도

구분	단독형			곡용 환경			
	I	II	III	-이	-에(서/다)	-을	-은
곳(處)	곳			곳이(70)	곳에(69)	곳을(13)	곳은(10)
뜻	뜻			뜻이(179)	뜻에(10)	뜻을(50)	뜻은(24)
벗	벗			벗이(1)			
낮	낮			낮이(1)		낮을(5)	
붓(筆)	붓(8)						
			붓(3)	붓이(1)		붓을(2)	
빛(價)	빛(9)					빛을(4)	
				빛이(2)		빛을(3)	빛은(1)

‘ㄷ>ㅌ>ㅅ’ 변화 관련 어휘들은 일기 안에서도 ‘ㅅ’ 표기로 안정되게 나타난다. 이는 전북을 포함한 서남방언이 ‘ㅅ’로 마찰음화 혹은 유추에 의한 패러다임의 평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역이며 저자의 경우도 그러한 지역적 기반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배경 위에서 ‘빛(價)’과 ‘붓(筆)’의 표기로 나타나는 ‘빛’과 ‘붓’은 특징적 표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ㅌ>ㅅ’ 관련 어휘 중 일기에서 확인 가능한 어휘는 ‘젓’과 ‘낮’이다. ‘젓’의 경우는 ‘젓을’이 2회, ‘낮’의 경우는 처격 통합형 ‘대나제’가 1회, ‘낮잠’이 11회 출현

17) 광충구(1984:3)에서 “빈(價)은 아직도 正書法上 ‘빛’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몇몇 地域方言을 제외하면 이도 역시 중부방언에서는 다른 어사들처럼 /빛/으로 재구조화 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다. ‘젓’은 ‘젓’으로 어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낫’은 처격 어미와의 통합형은 물론 그 밖의 경우에도 여전히 변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술, 밭, 끝, 밭’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처격 통합 환경에서도 ‘술에-술에’, ‘밭에-밭에-밭에’ 등 다양한 표기가 출현하며 단독형에서도 ‘-ㅅ-ㅅ-ㅅ’ 표기 변이가 보인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ㅅ’계 어휘의 표기와 출현 빈도

	단독형			공용 환경			
	I	II	III	-이	-에(서/다)	-을	-으로
술	숯(11)				숯에(1)	숯을(2)	
					숯테(1) 술에(3)		
밭		밭(1)			밭에(4) 밧테(2)		
				밧이(1)	밧에(2)		
끝	끗(21) ¹⁸⁾			끗이(1)		끗을(1)	
		끝(322)		끝이 (266)	끝에(36) 끗테(1)	끝을(36)	끝으로 (5)
			끗(1)	끗이(19)			
밭				밭이(3)	밭에(2)	밭을(11)	
				밭이(3)	밭에(220)	밭을(53)	밭으로 (4)
				밭이(4)	밭에(2)	밭을(4)	

먼저 주목되는 것은 ‘끝’과 ‘밭’의 표기이다. ‘끝’은 전체 709회 중 666회(93.9%), ‘끗’과 ‘끗’은 각각 22회(3.1%), 20회(2.8%) 출현한다. 이는 일기 저자가 규범 표기 ‘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말에 대한 주의력과 관련하여 ‘끗’과 ‘끗’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밭’은 전체 306회 중 280회(91%), ‘밭’, ‘밭’은 각각 16회(5.2%) 10회(3.2%)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끝’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술’과

18) ‘끗, 끝’의 단독형은 ‘끗나, 끝내, 끝나, 끝내’의 활용형에서 어근 끝의 횡수임.

‘밭’은 각각 18회, 10회로 출현 빈도에 있어서 ‘밭’ 709회, ‘밭’ 306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술’의 표기 변이는 ‘숯’과 ‘술’, ‘밭’의 표기 변이는 ‘밭’과 ‘밭’으로 나타난다.

‘ㅈ’계 어휘 ‘웃, 빛, 낫, 꽃, 밋’의 표기는 ‘밋, 꽃, 밋’의 어휘에서 ‘ㅈ’과 ‘ㅅ’의 변이를 보이고 ‘낫’과 ‘웃’은 ‘ㅅ’로만 나타난다. ‘ㅈ’, ‘ㅅ’의 변이를 보이는 ‘밋, 꽃, 밋’의 어휘 중 ‘밋’은 총 329회로, ‘꽃’ 9회, ‘밋’ 6회에 비해 압도적 출현 빈도를 보인다. ‘밋’의 규범 표기 ‘밋’은 114회(34.6%), 방언 표기 ‘밋’은 215회(65.3%)이다. ‘꽃’의 경우는 규범 표기 2회, 방언 표기 7회, ‘밋’은 규범 표기 4회, 방언 표기 2회로 나타난다.¹⁹⁾

<표 5> ‘ㅈ’계 어휘의 표기와 출현 빈도

	단독형			곡용 환경			
	I	II	III	-이	-에(서/다)	-을	-은/-으로
웃(웃)						웃을	
빛(빛)					불빛에(1)	불빛을(1)	
				빛이(1)	빛에(1)	빛을(2)	
낫(낫)	낫(1)					낫을(3)	낫은(2)
꽃(꽃)	꽃(7)						
			꽃(2)				
밋(밋)	밋(212)			밋이(1)		밋을(2)	
			밋(102)	밋이(12)			

19) ‘밋’은 ‘밋(及)’과 비슷한 환경에서 출현한다. 즉 ‘밋’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출현하며 ‘밋’ 역시 단위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두 어휘의 출현 환경은 유사하다. 다만 ‘밋’은 ‘밋’에 비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이 가능하고 그 환경에서 나타나는 실현음 [s]가 표기에 반영되어 ‘밋’이 된 까닭에 단독형에서 말음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밋’에서 나타나는 ‘ㅅ’ 표기가 단 3회에 머무는 데 비해 ‘밋’은 212회로 표기규범 ‘밋’의 사용 빈도 102을 압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언 어간 말 중자음 표기 변이의 실현 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ㅈ’형의 출현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임실의 노년층 화자들의 일상적 발화에서 체언 어간 말 중자음은 대부분 마찰음 ‘ㅈ’로 실현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기 자료에서 ‘ㄷ, ㅈ, ㅉ, ㅊ계’ 어휘 모두에 분포되어 있는 ‘ㅈ’ 표기는 먼저 받음을 표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표기의 정확성을 지향한 결과이다.

<표 6> 어휘별 표기 변이와 출현 분포 및 횟수 비교

분류	어휘	표기	사례 총수	주격	대격	처격	단독
ㄷ계	끝	끗	22	1			21
		꺄	666	266			322
		꺃	20	19			1
	밭	뵁	16	3	11	2	
		뵁	280	3	57	220	
		뵁	10	4	4	2	
	밋	*					
		밋	7			6	
		밋	3	1		2	
	솔	꺃	14		2	1	11
		꺃	4			4	
		*					
ㅈ계	뵁	뵁	215				212
		뵁	114				102
	꺃	꺃	7				7
		꺃	2				2
	뵁	뵁	2		1	1	
뵁		4	1	2	1		
ㅉ계	뵁	뵁	13		4		9
		*					
		뵁	6	2	4		
ㅊ계	뵁	뵁	8				8
		뵁	6	1	2		3
누계			1,419	301	87	239	698

‘ㅅ-ㅈ’ 변이를 보이는 어휘 중 ‘끝’(49.8%), ‘밭’(21.6%), 그리고 ‘땃’(23.2%)의 점유율이 전체의 94.6%를 차지하며 규범 표기 사용률은 ‘끝’(93.8%), ‘밭’(91%), 으로 두 어휘 모두 90%를 상회한다. ‘끝’과 ‘밭’의 결정적 차이는 ‘끝’은 주격 통합 환경에서 ‘끝+이’(266회), ‘밭’은 처격 통합 환경에서 ‘밭+에’(220회) 압도적으로 출현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기 저자가 ‘ㅅ’계 체언의 규범 표기 ‘끝’과 ‘밭’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제의 ‘ㅈ’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끝+이’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²⁰⁾

‘ㅈ’을 어간 말음에 사용한 표기는 저자의 과도분절 의식과 더불어 표준어에서 어간 말 설단자음 ‘ㅈ’을 가진 어휘 중 일기 자료에서 ‘ㅈ’로 표기된 어휘 ‘땃, 땃’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땃(及)’은 일기 전체에서 총 249회, ‘땃’은 102회 출현한다. 그런데 ‘땃’은 격조사 통합 환경을 갖지 못한다. ‘땃’도 대부분 관형형으로 사용되지만 격조사 통합 환경에서 ‘땃(95.6%)’-‘땃(34.6%)’의 변이가 확인된다. 출현 횟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땃’(4), ‘땃’(2)이 각각 ‘땃(2), 땃(7)’과 변이상태를 보인다.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 표기에 ‘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ㅈ’ 표기의 출현은 그만큼 유표적이다. ‘ㅈ’의 존재가 ‘ㅅ’계, ‘ㅈ’계 어휘의 규범 표기와 발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그 정도의 외재적 위신을 가지는 것이다. 저자가 위로부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는 점에서 ‘ㅈ’의 사용은 격식적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을 보인다. 또한 음절 말에 ‘ㅅ’을 가진 유사 환경의 어휘들에서도 ‘ㅈ’의 사용이 확대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ㅈ’의 출현이 표준어 인식을 토대로 ‘끝+이’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ㅈ’ 발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밭(田), ‘땃(債), ‘땃(筆)으로 확대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²¹⁾

20) 오재혁·신지영(2007:228)에서 설정 자음 말음 체언의 어휘 사용 총빈도에서 ‘끝’의 빈도가 45474로 ‘밭’(15, 223), ‘땃’(7, 652) 등과 큰 차이를 보이며 고빈도 어휘가 ‘ㅅ’으로 교체하는 실현율이 낮은 이유를 고빈도 어휘의 빈도 효과에 따른 어휘적 강화로 보는 견해는 본고의 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고빈도 어휘의 빈도 효과가 작용하여 규범 표기 적용률도 높다는 것이다.

21) 토속방언의 ‘ㅈ’은 표기를 나타낸 것이며 단독형으로 발음될 때는 [ㅈ]이다. 그러나 모음 통합 환경에서는 변이형 목록에 따라 ‘ㅅ’, ‘ㅅ’, ‘ㅈ’ 모두가 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 변이 현상의 본질이다. 즉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설단자음 계열의 ‘ㅅ, ㅅ, ㅈ’가 끊임없

<표 7> 체언 어간에서 ‘ㅈ’의 환경별 출현 빈도

	어간	활용형 출현 빈도			
		단독형	주격	대격	처격
ㅅ(>ㅌ)>ㅈ	끝		[ㄱ치] 266(99.9%)		
	발				[바테] 220(89%)
ㅅ(>ㅌ)>ㅈ	빛			[비ㅈ] 66%	
ㅅ(>ㅌ)>ㅈ	빛			[비ㅈ] 33%	
ㅅ>ㅈ	붓			[부ㅈ] 42%	

3.3. 개신형 ‘ㅈ’ 시기 분석

이 장에서는 표준발음의 외재적 위신을 반영하는 개신 표기형 ‘꽃, 밭, 빛, 붓’의 출현 시기를 확인하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끝+이’와 ‘맺’ 등에서 포착된 규범표기와 표준 발음 ‘ㅈ’의 어휘적 확산의 과정과 시기를 밝혀 빈도 분석에서 추정했던 가능성의 실제 양상을 추적하기로 한다.

‘꽃’과 ‘밭’은 일기 작성 초기인 69년과 70년부터 이미 보수형²²⁾과 개신형²³⁾ 사이의 변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꽃’은, “日課 꽃. <1969년 1월 19일 일요일 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기 작성 첫해에 단독형으로 출현한다. ‘밭’의 경우도 앞서 살펴본 바와

이 유동적이며 가변성을 보이는 동시에 현대 국어 시기에 그에 덧붙여 개인의 발화스타일에 따라 서로 유동성을 보이는 이유가 체언 어간 말의 ‘ㅅ’이 추상적 음소로서 음절 말에서의 실현은 모두 [ㄱ]이나 모음 통합 환경에서의 실현은 통시적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음 목록과 그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합의 내용 그리고 각각의 발화 상황과 발화스타일에 따라 ‘ㅅ, ㅌ, ㅌ, ㅈ’를 선택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시대, 지역, 상황, 스타일 등의 변수에 따른 분석은 변이형 목록의 확인과 그 출현 빈도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대상이며 지역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다른 어휘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2) ‘꽃’의 출현은 다음과 같다. 今日로써 모는 꽃을 냈다. 午後부터 <1970년 7월 4일>, 會計는 完全に 꽃이 냈다. <1976년 1월 8일 목요일 눈 비>

23) ‘꽃’의 출현은 처음과 끝 1회 씩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한다. 朝食이 꽃이 나기가 밥오게 <1974년 1월 1일 화요일 陰 12月 8日>, 집에서 꽃이 냈는데 食事を <1991년 4월 30일 화요일>

같이 표준어형이 표기의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보수형 ‘밭’과 개신형 ‘밭’의 출현이 일기 작성 첫해부터 출현한다. 이 역시 ‘끝’에서처럼 이전 시기부터 저자의 언어생활에서 토속방언형 ‘ㅅ’와 표준어형 ‘ㅌ’ 그리고 개신표기형 ‘ㅈ’가 일기를 쓰기 전부터 저자의 구어 속에서도 변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표준어 ‘밭’과 더불어 개신형 ‘밭’의 출현은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 ‘ㅈ’가 표준발음이며 외재적 위신을 가지고 유사한 환경의 체언 어간 말 자음 교체를 이끄는 실체임을 나타낸다.

<표 8> ‘끝’의 보수형과 개신형 연도별 출현 횟수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끝		1						1									
꽃	1					2	3	2	3		2	1		1		1	

<표 9> ‘밭’의 보수형과 개신형 연도별 출현 횟수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밭	6	3	1	1	2	1		5	4	3	4	2		1		1	
밭	4	1							1	2	3		2	1		1	

‘밭(賃)’의 변이형 ‘밭’과 ‘붓(筆)’의 변이형 ‘붓’의 출현 시기는 개신형 ‘ㅈ’의 어휘적 확산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밭(賃)’의 변이형 ‘밭’과 ‘밭’은 1974년 보수형과 개신형이 함께 출현하는 반면, ‘붓’의 경우에는 보수형 ‘붓’은 69년, 개신형 ‘붓’은 그보다 16년 후인 85년에야 처음 나타난다.

<표 10> ‘밭(賃)’의 보수형과 개신형 연도별 출현 횟수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밭		2	1		1	2	1		2								
밭		2			1		1			1			2	1	2		

<표 11> ‘붓’의 보수형과 개신형 연도별 출현 횟수

	69	70	71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붓	3	1			1		1	1					1		1	
붓								1					2			3

표준어 ‘빚’(債)의 토속방언 ‘빋’과 개신형 ‘빋’이 변이를 보이는 것은 표준어 ‘빋’을 인식한 결과이다. 물론 여기에 ‘끝+이’의 [ㅈ], 즉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를 이끄는 개신형 ‘ㅈ’의 외재적 위신이라는 사회언어학적 가치가 동반된다. 표준발음에서 비롯된 ‘ㅈ’이 가지는 외재적 위신은 ‘빋-빋’의 변이보다 11년 뒤에 출현하는 ‘붓-붓(筆)²⁴⁾의 변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는 저자의 인식 속에 ‘ㅈ’가 표준발음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것이 유사 환경으로 유추되어 어휘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체언 어간 말 자음에서 일어나는 ‘ㅈ-ㅈ-ㅈ’, ‘ㅈ-ㅈ’의 변이에서 ‘ㅈ’ 외재적 위신과 유추적 확대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언 어간 말 개신형 ‘ㅈ’의 외재적 위신과 유추적 확대 과정>

① 표준어의 차용(학습)

체언 어간에서 ‘ㅈ’ 이외의 받침에 대한 인식

밭, 끝 ----- ‘ㅈ’ 형 표준어 인식

밋(及), 몇 ----- ‘ㅈ’ 형 표준어 인식

② 주격 환경의 구개음화형의 인식

‘끝+이’의 압도적 출현 - ‘ㅈ’ 말음의 외재적 위신 인식, 대격 환경으로 확장

‘밭+에’의 압도적 출현 - ㅈ 말음은 처격 조사 통합 환경에서만 지속

③ ‘ㅈ’ 말음에서 변이 생성 : 붓(末), 밋(田)

④ ‘ㅈ’ 말음의 유추적 확대 : 빋(債), 붓(筆)

24) ‘붓’이 출현 환경은 필체와 주체 등에 따라 일정한 스타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다음 논의로 미루기로 한다. 예문: 朝食을 맞이고 붓골 ㅈ行 善家屋을 求景하러 갔다. <1985년 3월 29일 금요일>, 분석기준: 시작 부분 / 세로쓰기 / 일상 정리 / 외지인에 대한 기술

<표 12> 표준발음 ‘ㅈ’의 유추에 의한 변이 형성 과정

표준어와 주격 곡용형에 의한 다중기저 형성 과정				유추에 의한 확대 적용		
토속 방언	표준어 차용	주격 환경	재분석	ㄷ형	ㅅ 1형	ㅅ 2형
끗						
	끝	‘ㅈ’				
			끗	밧-밭-밧		
					밧-밧	
						붓-붓
1969년 이전					1974년	1985년

4. 결론

본 논의는 장기간에 걸쳐 기록된 일기 자료를 통해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에서 나타나는 개신형 ‘ㅈ’의 출현과 그 확산 과정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언어적 지향성을 토대로 이해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도된 미시사, 생활사의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국어생활사의 관점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귀납적 추론의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거시적 관점의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현상 본질에 대한 합리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일기 저자의 경우,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에서 출현하는 개신형 ‘ㅈ’는 표준어 ‘끝’과 주격 통합 환경 ‘끝+이’에서 실현되는 표준발음 ‘ㅈ’에서 비롯된다. 일기 전체에서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을 가진 어휘 중 그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는 ‘끝, 밧, 밧이다. 이는 전체 어휘의 약 94.6%를 차지한다. ‘밧’과 ‘밭’은 각각 단독형, 처격 통합 환경에 한정되므로 현실 발음에서 ‘ㅈ’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은 ‘끝+이’의 환경이 압도적이다. ‘끝+이’의 구개음화 적용형 ‘ㅈ’가 표준발음으로서 외재적 위신을 갖게 된 이후 유사한 환경 ‘밧, 붓’ 등에 유추적 확대 과정을 거친다. 유추적 확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적용 양상은 환경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기 자료에서는

‘빛’의 경우 표준어 ‘빛’의 영향을 받아 ‘붓’보다 약 십 년 정도 앞서 유추적 확대가 적용된다. 이 과정은 <표 7>과 <표 12>로 정리될 수 있다.

<표 7> 체언 어간에서 ‘ㅈ’의 환경별 출현 빈도

	어간	활용형 출현 빈도			
		단독형	주격	대격	처격
ㅅ(>ㅌ)>ㅈ	끝		[ㄱ치] 266(99.9%)		
	발				[바테] 220(89%)
ㅅ(>ㅊ)>ㅈ	빛			[비ㅈ] 66%	
ㅅ(>ㅈ)>ㅈ	빛			[비ㅈ] 33%	
ㅅ>ㅈ	붓			[부ㅈ] 42%	

<표 12> 표준발음 ‘ㅈ’의 유추에 의한 변이 형성 과정

표준어와 주격 국용형에 의한 다중기저 형성 과정				유추에 의한 확대 적용		
토속 방언	표준어 차용	주격 환경	재분석	ㅌ형	ㅅ 1형	ㅅ 2형
곶						
	끝	‘ㅈ’				
			곶	빛-발-빛		
					빛-빛	
						붓-붓
1969년 이전					1974년	1985년

현재 전북 방언 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의 변이와 변화는 이전 시기의 보수형 ‘ㅅ’에서 개신형 ‘ㅈ’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저자의 경우로 미루어,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규범언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표준규범으로 인식한 발음을 표준어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때문에 그 발음을 잘못 적용한 현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일기 저자의 경우 바로 그 전형적 인물이며 그러한 변화가 언어 변화에 수용된다면 그 변화의 초기 채택자라고 할 수 있다.

일기 저자가 이런 특성을 보인 것은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재적 위신의 적극적 수용 과정의 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시대적 일반성에 기반하지만 개인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저자의 경우는 근대국가국민 되기의 한 전형적 인물로서 외부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에서 개신형 출현과 확산도 그러한 개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주제어 : 국어생활사연구, 체언 어간 말 설단자음, 외재적 위신, 내재적 위신, 유추적 평준화, 미시사

<참고문헌>

- 강창석(2001), 「국어 표기법 연구의 몇 가지 과제」, 『울산어문논집』 제15호, 울산대학교 출판부, 95-115면.
- 고광모(1989), 「체언 끝의 변화 ㄷ>ㅅ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언어학』 11집, 한국언어학회, 3-22면.
- 강희숙(1992), 「국어 마찰음화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4,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7-50면.
- 곽차섭(2), 「2세대 미시사: '사회'에서 '문화'로」, 『역사와 문화』 제23집, 문화사학회, 4~27면.
- 곽충구(1984),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집, 1~22면.
- 김경아(1995),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93~311면.
- 김경아(2008),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에 대한 통시론」, 『동양학』 제43집, 71~94면.
- 김규남(2011), 「생애사 기록물 <책평일기>와 <월과유고>에 나타난 정체성과 언어 의식」, 방언학 13집, 한국방언학회, 25~60면.
- 김규남(2012), 「과도교정과 위신표기의 사회언어학적 이해」, 『방언학』 15집, 한국방언학회, 257~285면.
- 김규남(2013), 「위신표기 추이와 사회적 변수의 상관성 연구-개인기록 <창평일기> 26년의 기록을 중심으로-」, 『방언학』 17집, 한국방언학회, 201~228면.
- 김봉국(2005),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양상-동해안 방언 및 함북 육진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 45, 국어학회.
- 김수영(2014),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격음 말음 어간을 중심으로-」, 『방언학』 19집, 한국방언학회, 93~119면.
- 김은성(2007),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37~468면.

- 김해정 외(1982), 「전북임실방언 연구」, 전주우석대논문집 제4집, 우석대학교, 1~65면.
- 박진호(2007), 「문자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구결」, 『한말언구학회 학회발표집』
- 배운숙(2014), 대전 지역 청소년의 체언 어간말 유기자음 조음 경향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두현(20120),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제10집, 국어사학회, 41~72면.
- 백두현(2011), 「19세기 초기 전라방언 자료 『수운정비회유록』 연구」, 『한국문화』 5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5~96면.
- 백두현 · 전영근(2012), 「『수운정비회유록(수운정비회유록)』의 원문 번역과 주해」, 『국어사연구』 15호, 국어사연구회, 323~356면.
- 소신애(2005),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의 상관성』,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신애(2006), 「음운론적 변이의 유형과 원인」, 『어문연구』 3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소신애(2009), 「표기상의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국어교육』 129, 한국어교육학회, 177~208면.
- 오재혁 · 신지영(2007), 「체언 말 자음의 교체 현상과 동음 충돌」, 『한국어학』 34집, 209~232면.
- 이길재(2004), 「곡용과 활용의 어간재구조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12-1, 한국사회언어학회, 171~205면.
- 이장희(2008), 「어문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제13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333~367면.
- 이진호(2004), 「‘삿(簞)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국어학』 43, 국어학회, 299~327면.
- 이정덕 외(2012), 『창평일기』 1, 지식과교양.
- 이정덕 외(2013), 『창평일기』 3, 지식과교양.
- 조동일(2003),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관악어문연구』 제28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9~90면.
- 조태린(2009), 『국어생활사 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요소』, 『문법교육』 제10집, 한국문법교육학회, 347~368면.

최임식(1990),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 『계명어문학』 5집, 계명어문학회, 123~144면.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최태영(1977), 「국어의 마찰음화고」, 『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서울: 탐출판사.

홍미주(2003), 「체언 어간말 (ㄸ), (ㄷ)의 실현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1-1, 한국사회언어학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 V, 전라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bstract]

A Study On Korean Language Life History Based On Personal Records

– Focus On Coronal Consonant's Variation and Change in Coda of Un-inflectional Words

Kim, Gyunam

This paper tries to establish a mechanic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an appearance and lexical diffusion of an innovated form [č^h] and the identity as well as the attitude of the diary recorder. This paper discusses a process of variation and change on an innovated form [č^h] in last position of un-inflectional words in a longitude personal record data based on a point of view in Korean Language Life History. Korean Language Life History is regarded as a part of Micro-History and Life-History which were developed in Europe and America. This study's aim is to describe concrete content about aspects in a person's life based on a particular period and region. So this paper tries to explain a mechanic process about concrete facts in usage of language. The writer of Chang-pyeong diary is a typical person who made his fortune by his own efforts in modernization era of Korea. He had a self-respected character but his intelligent image in his village did not match that. The appearance of innovated form [č^h] is a kind of sign of trying to overcome the burden of the gap between social achievement and intelligent state. This study presents a concrete process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based on point of view in Korean Language Life History.

【Key words】 : Korean Life Historical study, Coronal Consonants in Coda of Un-inflectional Words, Covert Prestige, Overt Prestige, Micro-history

김규남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500-757)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hopechest@daum.net

이 논문은 2015년 4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6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